

# 한장의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

전주국제사진제, 내일 풍남문광장서 개막  
25일까지 한옥마을 등서 진행  
사진가 등과 연계한 전시·프로그램 마련



사진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전주 국제사진제'가 20일부터 2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서학동예술마을,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오후 5시 풍남문광장에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사진가, 전기 기획자, 학술인, 사진애호가와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진제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를 꾀한다. '동음이의어 'This Location / Dislocation'를 주제로 한 전시는 대변동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대조적인 경험들을 보여준다. 이들 작가들은 사진을 매개로 일상의 기록 내지 갈등의 기록을 담아낸다. 어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Dislocation이라 불릴 수 있는 곳의 혼란을, 다른 이는 팝컬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암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지역성을 벗어나 소수 그리고 비밀스러운 세상을 들춰내고 있다. 본 행사 전시는 전시대렉터 피터 가필드작가를 비롯해 8개국 1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 (서학동 예술마을)'을 비롯해 전주의 유적·식·생활·종교문화 등을 선보이는 '전주한식문화미디어사진전(전북예술회관)', 사진을 통한 문화교류 'Festivals in the festival(전북예술회관)', 한·중·일 등 각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International College Video Art Festival(전북예술회관)', 지난해 전주사진제 전시감독인 에릭워스와 경일대 최종성 교수의 개인전 'Solo Exhibition(사학아트스페이스·교

동아트미술관)'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전주 지역 등 청년아티스트 7인의 'Young Artists Group Exhibition(전북예술회관)', 도내 학생작가 13인의 사진전(서학동예술마을 전주교대 부속초등학교 앞)과 사진 전문잡지 포토닷에서 주관하는 컬렉션 7인전(사진공간 눈), 성남훈작가의 다크멘터리 사진전(전주향교)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사진인들과 일반인들이 한데 모여 사진제를 즐기는 '별빛 스킨링의 여행(Artists

Night)'은 개막일 오후 7시 서학동예술마을에서 열린다. 사진제를 주최·주관하는 (사)현대사진미디어연구소·전주국제사진제운영위원회의 박승환 소장 겸 운영위원장은 "이번 전주국제사진제는 사진예술을 통한 도시 간 문화교류 및 국제적 네트워크 소통과 이해를 돕는 문화교류의 장"이라면서 "작가들의 사진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도움이 될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한지문화축제 한미특별교류전 개최

한지산업센터 전시실서 25일까지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남호)는 미국 밀워키 대학(위스콘신주 소재) 한지작가 6명을 초청해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 전시실에서 '한미특별교류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5년 전 전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한지공예의 소재로 쓰인 한지의 자연스러움과 투박함에 매료됐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한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작품 활동에 전념했으며 한지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전주출신으로 미국에서 한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나 윤(밀워키 예술대학 판화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한지소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제조법이나 한지공예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한지를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용근 전주한지문화축제 집행위원장은 "한지는 친환경소재로 미국·유럽등 종이 전문가들에게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 종이아티스트들에게 한지소재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한지에올대전 일환으로 열리는 '한미특별교류전'은 오는 25일 까지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주한지문화축제는 19~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개막식 특별공연에는 국악인 남상일, 록밴드 국가스텐, 소프라노 김민지, 탤런트 김수미, 살림예술가 이효재 등이 참여한다. 대한민국한지에올대전 수상작 전시에서부터 전주한지재산대전, 한지전래놀이 체험등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웃음·해학·풍자의 '3중주'로 구성

21일부터 전주한벽문화관서 개막공연

2017한옥마을 상설공연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가 오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한벽문화관 흥례마당에서 펼쳐진다. 개막공연은 21일. 판소리 다섯바탕 중에서 심청가의 황성맹인잔치 대목을 재구성한 '천하맹인 눈을 뜬다'는 원전의 메시지를 그대로 살려냄으로써 작품이 지닌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다. 또 시대적 코드를 반영한 웃음, 해학, 풍자가 결집된 한마당으로 구성되어 모든 세대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했다. 무대에는 당대 최고의 심봉사로 평가받는 왕기석 명창과 정민영, 김찬미, 김승 등 관록 있는 중견 소리꾼과 박현영, 김유빈 등 재기 발랄한 젊은 소리꾼들이 올라 창극의 정통성을 선보인다. 여기에 뮤지컬 배우 박나래미, 김은결과 입담꾼 임인환, 연극배우가 합류해 전주마당창극에 새로운 색깔의 웃음을 입힌다. 한편 전북도·전북도문화관광재단·전주시 주최,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주관하는 전주마당창극은 한옥, 판소리 등 전주의 우수한 전통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기획됐다. 공연 티켓은 1만5천원, 패키지 티켓은 2만5천원. /정해은 기자

## '동학혁명의 영웅' 김개남 장군 고택터에서 석축구조물 발굴

정읍시, 문화재 시굴조사서

정읍시는 현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중 하나로 '김개남 장군 고택 복원'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개남 장군은 전봉준장군, 순화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3대 수장 중 한명이다. 제1전북문화재단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680번지 일원(지급실하늘) 1,500㎡ 면적에 대해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중 그동안 문화와 구전으로 전해내려 온 김 장군의 고택터에서 다수의 유구(석축구조물)와 기와편, 분청사기, 자기편 등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는 그동안 학술연구와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김개남 장군 고택터 유적의 성격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 고택복원의 실제



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문화재 자문위원, 용역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조사 진행 상황 정취, 질의답변, 자문위원 총평 그리고 출토된 유구와 유물' 등을 살펴보았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유한호 호남문화재연구원장과 안승모 원광대학교 교수는 발굴된 유구와 유물은 조선시대(근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석축구조물은 김개남장군의 생전시기와 일치되는 집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면적을 확대하여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번 시굴조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후 본격 발굴 조사를 통해 고택의 위치와 윤곽을 정밀 파악하고 김개남장군 고택복원에 박차를 가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국화·세계화에 앞장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 공연 전시 ◀



## 내일 군산시 토요일 야외문화공연 개최

군산시가 주관하는 2017년 토요일 야외문화 공연이 20일 오후 5시에 내운동 시민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토요일 야외문화공연은 주말지역 가족단위의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공연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 및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공연이며 올해는 시민문화회관 야외광장, 은파호수공원, 근대역사박물관에서 10월초까지 토요일 격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첫 공연은 ▲케이시비(제즈 브러스) ▲저글러 리순(미니서커스 공연) ▲안무스 ▲통기타 가수 김민영 등 총 5개 팀의 다양한 장르로 알찬 무대가 준비되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토요일상설 문화공연은 시민들의 예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올해 한해동안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장형 기자

## 전주 찾는 축구팬들에게 전주 전통문화 선보인다

전통문화전당, 내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주 Good 솜씨마당' 무형문화재 장인들 참여 작품전시·워크숍 특별전시실에서 열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대수)은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야외 주차장에서 '전주 굿(Good) 솜씨마당' 행사를 연다. 이는 FIFA U-20 월드컵을 맞아 전주를 찾는 전 세계 축구팬들과 관광객들에게 전주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한 자리로 손재주가 좋은 우리지역 무형문화재(기능장) 장인들의 월등한 작품이

전시된다. 전주무형문화재 20인이 참여하는 '전주 무형문화재 작품전시 및 워크숍'은 특별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주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시연하며, 행사기간 내에 하루 1회 이상 총 20회 진행된다. '옛 솜씨에 취하다, 기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작고 무형문화재 특별전'

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고(故) 이기동(선지장), 조석진(소목장), 강소애(자수장), 엄주원(선자장), 방준근(선자장) 장인 등 총 5명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느끼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전주핸드메이드 프리마켓'은 물론 투호, 고리던지기, 비석치기 등 과거 다양한 놀이방식을 모아놓은 '전통문화 놀이터',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월드컵 종합 홍보관과 지푸라기로 제작한 전통 짚풀공예품 축구장도 행사기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